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3월(제81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양국의 교류가 오랫동안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오이타현-웨일스 MOU 체결 1주년



지난 1일, '오이타현-영국 웨일스 정부'와 '오이타현립미술관(OPAM)-웨일스국립박물관'의 우호 교류 MOU(우호 교류와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 체결 1주년을 기념하여 OPAM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기념행사에서는 웨일스국립박물관 학예사의 미니 세미나, 웨일스 남성 합창단 '온리 보이 스 어라우드(Only Boys Aloud)' 합창 리더의 기념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 오이타현-영국 웨일스의 교류

웨일스는 영국을 구성하는 네 개의 연합 국가(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중 하나입니다. 오이타현은 지난 2019년에 개최한 럭비 월드컵을 계기로 교류를 시작했으며, 한층 더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하는 웨일스 정부의 제안으로 지난해 3월 1일에 문화 예술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우호 교류와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웨일스국립박물관 학예사의 미니 세미나

청명한 하늘과 대현수교, 그리고 헤비메탈의 조화

## 고코노에정 소식 고코노에정 九重町



일본에서 가장 높은 보행자 전용 현수교인 '고코노에 "꿈"의 대현수교'는 구주 연산, 일본 폭포 100선에 선정된 '신도노 타키 폭포(震動の滝)', 계절별로 모습을 달리하는 '나루코가와 계곡(鳴子川溪谷)'을 볼 수 있는 오이타현 대표 관광지입니다. 지난해에는 새로운 이미지 송을 만들고자 헤비메탈 장르의 곡 공모전을 개최했는데, 많은 여러분께서 응모해 주신 가운데 헤비메탈 밴드 'MONSHIROH'의 '가쓰라 몬시로(桂 紋四郎)' 씨의 'PROMENADE IN THE SKY'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수교에 가시면 이 노래를 들으실 수 있으며, 최근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유튜브에 업로드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 <찾아 보세요> "캐릭터 맨홀"



오이타현 출신 만화가 '에토 히로유키' 선생님의 대표작 <전설의 마법 쿠루쿠루(원제: 魔法陣グルグル)> 디자인의 맨홀이 제작되었습니다. 총 네 종류의 맨홀은 입장 게이트를 통과하신 구역 내에서 만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3월(제81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히나마쓰리에 기간에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히타

## 덴료 히타 히나마쓰리&데미리 히타시 臼田市

오이타현 서부에 위치한 히타는 에도시대 때에 천황이 직접 다스렸기에 ‘덴료 히타(天領日田)’라고 불리며 규슈의 중심지로 번창했다. 또한, ‘규슈 히나마쓰리 발상지’로서 1984년부터 매년 ‘덴료 히타 히나마쓰리’를 개최하고 있는데, 오늘은 40주년을 맞은 이 축제 기간에 공개되는 화려한 인형을 볼 수 있는 장소와 특별한 체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히타 간장 히나 인형 뮤지엄 ‘오키아게 히나 인형’

그 전에 먼저 ‘히나마쓰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히나마쓰리(ひな祭り)’는 복숭아꽃이 피는 시기인 매년 3월 3일에 여자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전통 행사로, 흙수의 히나 인형 단에 히나 인형을 장식하고 백색 술(白酒), 마름모 모양 삼색 떡(菱餅), 초밥용 밥 위에 재료를 얹은 요리(ちらし寿司) 등을 먹으며 복을 기원한다. 히나 인형을 본격적으로 장식하기 시작한 건 에도 시대(1600년대~)부터인데, 시간이 흐르며 다양한 종류의 히나 인



히타 간장 히나 인형 뮤지엄 ‘기메코미 히나 인형’

형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천과 솜으로 납작하게 만들었지만 입체감이 느껴지는 ‘오키아게 히나 인형(おきあげ雛・押し絵雛)’, 오동나무 가루로 몸체를 만들고 흙에 옷을 끼워 만든 ‘기메코미 히나 인형(木目込み雛)’, 미키마우스와 헬로키티, 호빵맨 등의 캐릭터로 만든 ‘캐릭터 히나 인형’ 등...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히나 인형 약 3,800개와 히나 인형 단 장식 도구 약 4,500개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JR 히타역에서 북쪽으로 약 1.5km 거리에 위치한 ‘히타 간장 히나 인형 뮤지엄’이다.



히타 간장 히나 인형 뮤지엄 ‘현대 캐릭터 히나 인형’

이곳은 히타 간장 회사에 대대로 전해지는 히나 인형과 전국 각지에서 수집한 히나 인형을 일 년 내내 공개하는 곳으로, 총 10개의 전시실에서 시대별·종류별 히나 인형을 볼 수 있다. 그중 ‘황금의 방’에 전시된 히나 인형 10단 장식은 일본 국내의 히나 인형 상설 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라고 한다. 전체적으로 전시 구성도 잘 되어있고, 평생 볼 히나 인형을 다 봤다 싶을 만큼 수많은 히나 인형과 화려한 장식에 압도당하니 방문해 볼 것을 추천한다.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3월(제81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구사노 본가(※내부 촬영 불가)

오래전에 이러한 히나 인형을 일반 공개하여 일본에서 최초로 히나마츠리를 관광화했다고 알려진 '구사노 본가'에서도 히나 인형을 만나 볼 수 있다. 일 년에 네 번·주제 전시를 할 때만 건물 내부를 공개하는 이곳에서는 히나마쓰리 기간 동안 다양한 시대의 히나 인형 178개와 장식을 전시한다. 그중에서도 한 세트가 42개의 인형으로 구성된 히나 인형 단은 여기서 꼭 봐야 할 관람 포인트인데, 일반적으로 인형 15개가 한 세트인 점을 고려하면 얼마나 호화로운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데마리 공방 '히나 데마리'

한편 형편이 어려운 이들은 화려한 히나 인형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작은 인형과 '데마리' 등을 실로 매달은 '쓰루시비나(吊し雛)'를 장식했다. 여기서 '데마리(手まり)'란 걸면에 자수를 놓아 만든 장난감 공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전통 공예품으로서 사랑받고 있다고 한다. 마침 JR 히타역 남쪽의 구마마치(隈町)의 데마리 공방에서 히나 인형 모양의 데마리를 볼 수 있다고 하여 특별한 데마리를 감상하고 또 직접 만들어 보기 위해 공방에 다녀왔다.



실이 겹겹이 쌓여 완성되어 가는 데마리

체험은 다양한 데마리와 상냥한 선생님이 반겨 주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는데, 나사의 머리와 솜, 털실로 만든 검정 공 위에 원하는 색의 실을 골라 수를 놓는 방식으로 약 2시간이 소요되었다. 20년 동안 데마리를 만드신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실수해도 도와주셔서 처음이었지만 재미있었으며, 만들면서 데마리의 자수 디자인은 만드는 이의 상상력에 따라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족도가 높았던 이색 체험이기에 히타에 가면 데마리 체험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



히타 간장 히나 인형 뮤지엄 히나 저택  
(日田醤油ひな人形ミュージアムひな御殿)

- 주소 : 日田市豆田町13-6(〒877-0005)
- 운영 시간 : 09:30~17:30(1월 1일 휴관)
- 입장료 : 300엔



구사노 본가  
(草野本家)

- 주소 : 日田市豆田町11-4(〒877-0005)
- 운영 시간 : (※히나마쓰리 2/15~3/26) 10:00~16:30
- 입장료 : 대인 700엔 / 중고생 250엔



데마리 공방  
(てまり工房) ※사전 예약 필요

- 주소 : 日田市隈2-6-10(〒877-0044)
- 운영 시간 : 09:00~17:00(부정기 휴무)
- 체험료 : 2,000엔 / 체험 시간 : 1~2시간 소요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3월(제81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 노지 in 오이타

25화

노지의  
학창시절 다이어트 이야기 2



일본어를 가르치던 그 선생님은 성격이 좋으셔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당시 일본어를 공부하던 나는 선생님의 교무실에 자주 놀러갔 했었다.



하루는 급식에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나와 실컷 먹었다고 선생님께 자랑을 했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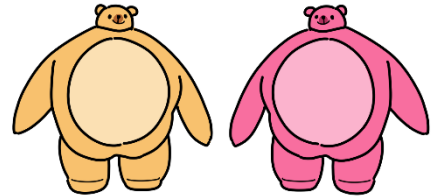


“너 그러다가 데굴데굴 굴러다닌다~”라며 여느 때처럼 농담을 던지셨다.



그런데 그날 석식시간에 정말 우연히 나보다 덩치가 큰 선배들을 보았고

\* 비하 의도가 없으므로 곰돌이로 대체합니다.



이상하리만치 심각성을 느낀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이어트를 결심했다.

